



New ETF Insight

Vol. 16

김수정

- 탈세계화가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
- 수혜가 기대되는 테마 1) 신재생 에너지
- 수혜가 기대되는 테마 2) 사이버 보안

Contents

Summary	2
탈세계화가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	3
탈세계화 패러다임의 수혜 테마 1) 신재생에너지	5
2) 사이버 보안	8

Summary

최근 탈세계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탈세계화는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2016년 브렉시트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직접적인 탈세계화 신호탄을 던졌다.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탈세계화에 물리적인 이동 자체를 방해한 코로나 19로 가속도가 붙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점을 찍었다.

이전에는 세계화의 흐름이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였다면 이젠 진짜 본격적인 탈세계화 흐름이 경제와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인 것이다. 탈세계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는 의미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이 국내, 지역으로 축소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반도체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미국에서 기술 개발 및 디자인을 하고 원자재는 남미와 러시아에서 가져다가 중국 혹은 신흥국에서 제조하는 공급 체계가 재편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페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세계은행에서 집계한 글로벌화 지수(글로벌 무역개방지수)를 보면 미-중 무역갈등이 시작된 2017년부터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물가와 무역 수준 모두 나라 간 정치적인 관계로 세계화 전 수준까지 회귀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탈세계화 초입에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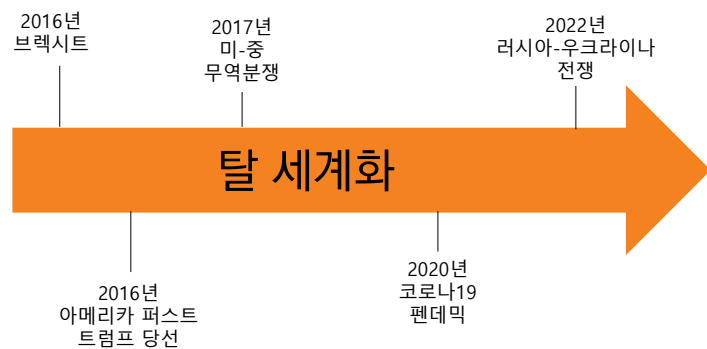
그럼 우리 이제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까? 반세기만에 세계화 흐름이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ETF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트렌드에 수혜를 받을 산업들을 골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피해를 보는 산업들도 생기겠지만 다양한 상황들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 용이한 산업들을 선별해보면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사이버 보안이 떠오른다.

New ETF Insight

탈세계화가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

최근 탈세계화(deglobalization)가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긴축, 글로벌 경기 하락과 더불어 더 장기적인 트렌드로 탈세계화가 작년 말부터 다양한 금융 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더 조명 받고 있지만 탈세계화의 단초는 2016년 브렉시트 투표였다. 2017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 층 더 탈세계화쪽으로 추가 기울었으며 코로나19로 사람과 물건 이동 제한이 추가되며 가속화되었다. 마지막 방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탓에 확실한 트렌드로 탈세계화가 자리잡았다.

탈세계화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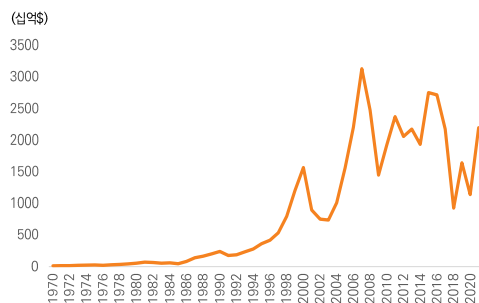
자료 : 미래에셋자산운용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전세계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된다는 의미다. 국내 가치 사슬, 또는 지역 가치사슬로 전환되는 것인데, 미국에서 기술 개발 및 디자인을 하고 원자재는 남미에서 가져다가 중국 혹은 신흥국에서 제조하는 공급 체계가 재편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자국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세계화가 약 50년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탈세계화 역시 앞으로 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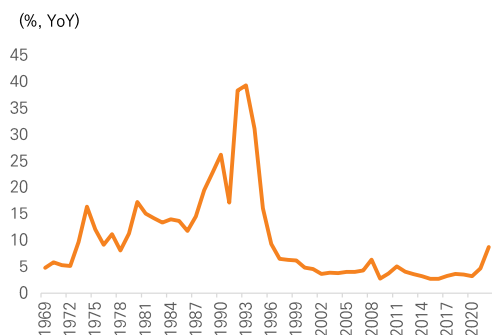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냉전시대(1950년대) 이후 세계화는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핵심 트렌드였다. 국가 간 교역이 늘어나 물건 가격이 떨어졌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나 전세계 GDP 성장에 일조했다. 최근 소비자물가수준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세계적인 분업화로 효율적인 생산을 하기 전 수준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보일 정도니 말이다.

전세계 FDI(외국인 직접 투자) 추이



자료 : 세계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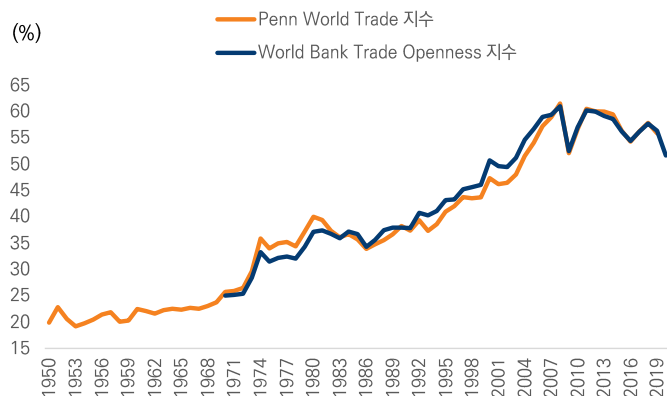
글로벌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 IMF,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페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세계은행에서 집계한 글로벌화 지수(글로벌 무역개방지수)를 보면 미-중 무역갈등이 시작된 2017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물가와 무역 수준 모두 나라 간 정치적인 관계로 세계화 전 수준까지 회귀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탈세계화 초입에 있는 셈이다.

무역으로 본 세계화 지수는 50 년동안 상승 후 하락 추세



자료 : Our World Data, 세계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주: 전체 GDP 중 수출 수입 비중

탈세계화 패러다임의 수혜 테마

그럼 우린 이제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까? 반세기만에 세계화 흐름이 반대로 흘러가는데, ETF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트렌드에 수혜를 받을 산업들을 골라볼 필요가 있다. 물론 피해를 보는 산업들도 생기겠지만 다양한 상황들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 용이한 산업들을 선별했다.

1) 신재생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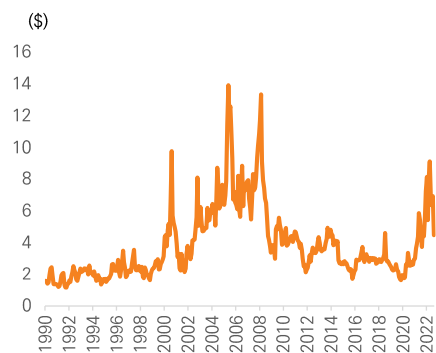
탈세계화에 방점을 찍은 이벤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에너지의 무기화가 다시 한번 전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만든 것을 경험했는데, 각국 정부들은 1970년대 오일쇼크 대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을 것이다. 1970년 오일쇼크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도록 약 50년동안 공급체계를 추구해왔지만 한 순간에 위기를 직면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에 보족한 방법도 없었다. 다행히 유럽의 겨울이 이상기온으로 따뜻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국가들은 비상 체제에 돌입하기 바빴다.

지정학적 이슈로 역사적으로 날뛰기 했던 유가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지정학적 이슈로 역사적으로 날뛰기 했던 천연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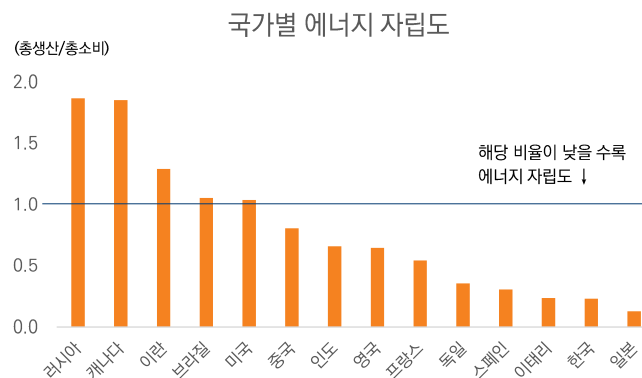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신재생에너지의 위상이 변하는 발단, 탈세계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원래 진행되고 있던 트렌드다. 하지만 이젠 글로벌 탄소 배출 감축이 목표라기 보단 탈세계화를 발단으로 생존 문제가 되었다.

2015년에 체결된 파리 협약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자발적 감축목표를 세워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 중이었지만 오히려 이젠 탈세계화가 에너지 자립도를 희망하는 국가들을 필두로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를 이루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요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젠 탈세계화가 주류를 잡은 시점에서 더 공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위한 투자가 가속화 될 것이다. 탈세계화로 신재생에너지가 가지는 중요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국가들 입장에선 신재생 에너지가 절실하다



자료 : Enerdata,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준일: 2021 년 말, 총에너지 생산/소비 비율로 1 보다 크면 에너지 자립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 0 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자립도가 부족한 것

특히 에너지 자립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국가들(한국, 일본, 유럽) 그리고 이 국가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미국, 중국)이 그 누구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유럽은 RePowerEU 계획을 발표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40%에서 45%로 올리기로 하였고 한국 역시 2030년까지 신재생 및 원자력 발전량 비중 각각 20,30%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전체적인 에너지 자립도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에너지 소비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1,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크게 발표하고 나섰다.

국가별 2022 년 발표된 저탄소 발전 정책

시기	변경 정책
유럽연합	- RePower EU, 체코/슬로베니아/루마니아 내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긴급조치)
미국	- IRA :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 촉진 목적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확대 - 미국 내 5 개의 주에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정책 개정
중국	- 신재생 에너지 관련 목표치 상향 조정
캐나다	- 2030 Emission Reduction Plan : 2030 년까지 2005 년 탄소배출량의 40% 미만 수준 달성, 2050 년까지 넷제로 달성
한국	-New Energy Policy Direction : 2030 년까지 신재생 및 원자력 발전량 비중 각 20%,30% 이상으로 증가, 석탄발전 감축
호주	-Climate Change Bill: 2030 년까지 2005 년 탄소배출량의 43% 미만 수준 달성, 2050 년까지 넷제로 달성
일본	-Strategic Energy Plan / Green Transformation Policy Initiative :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자료 : 각 국가 발표 자료, 미래에셋자산운용

탈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아래 신재생 에너지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기술 발전, 정책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등에 업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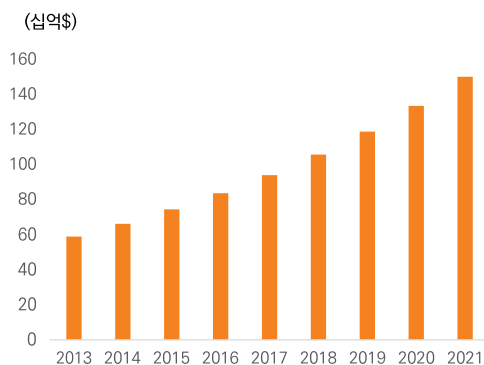
2) 사이버 보안

탈세계화의 방점을 찍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무기화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실질적인 무기로의 전쟁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먼저 전쟁을 벌였던 곳은 사이버 세상이었다. CNBC에 따르면 러시아는 처음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당시 3일 동안 전주대비 196% 더 많은 온라인 공격을 퍼부었다. 탈세계화는 실물경제 공급체계를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사이버 안보까지 중요한 화두로 끌어 올렸다.

작년 3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선 이제 핵실험을 통해 국가 간 압박하는 시대는 저물고 사이버 전쟁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탈세계화로 국가 간의 화합보다는 경쟁, 충돌,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도는 이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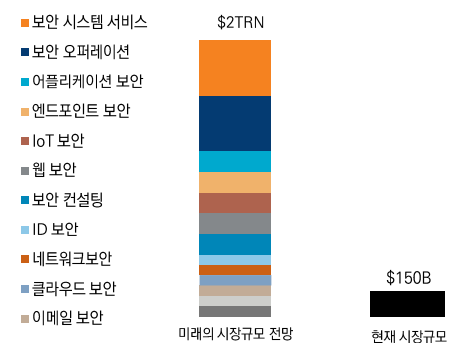
2022년 하반기 도이치 은행에서 전세계 기업 회계 재무 담당자들에게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이버 공격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한 인원이 35%에 달한다. 변경되는 세금 체계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가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이다. 사이버 보안 이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그만큼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2021년 기업들이 사이버보안에 지출한 금액은 약 \$150BN(1,500억달러)에 달한다. 매년 12.4%씩 늘어나고 있는데, 사이버 보안 기업들 입장에서선 고무적이다.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에 투자하는 금액은 매년 12% 성장



자료 : McKinsey,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준일: 2022.10.27

McKinsey, 사이버 보안 산업 최대 \$2.0TRN (2,500조원)



자료 : McKinsey,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준일: 2022.10.27

맥킨지는 최근 사이버 보안 산업이 2조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날이 갈수록 사이버 보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중이다. 탈세계화는 전반적인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이다. 그 중 하나의 주축이 사이버 보안인 셈이다. 탈세계화가 진행된다고 다같이 무기를 들고 싸우진 않을 테니 국가 간 공격, 국가간 견제는 사이버 상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원래도 성장성이 높았던 사이버 보안 산업에 탈세계화라는 트렌드가 더해지면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 관리 및 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ETF는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및 추적 대상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 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에 따른 미체결 등 현실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ETF의 수익률과 원화환산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 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격과의 괴리 발생 위험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로 인해 ETF의 순자산가치에 비해 거래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ETF 거래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은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IGER ETF에 투자하기 전,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는 그러한 투자가 자신의 특정한 투자 요구나 목적 및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자문가와 상담하거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펀드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작하였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본문 중 특정 역외 ETF 들은 해당 테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투자추천과는 무관합니다